

조선족·귀화 선수 '코리안 드림'

男 정상은 첫 우승·女 석하정 2년 연속 정상
국내최고 권위 탁구선수권서 '테이블 반란'

여자 탁구 대표팀의 에이스로 떠오른 중국 출신의 귀화 선수 석하정(25·대한항공)이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64회 종합 선수권대회 여자 단식에서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또 조선족 출신의 정상은(21·삼성생명)은 남자부에서 이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석하정은 3일 경기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나흘째 여자 단식 결승에서 동갑내기 팀 동료 김정현(25)을 세트스코어

4-1로 놀렸다. 준결승에서 대표팀 말언니 김 경아(34·대한항공)를 4-3으로 힘겹게 물리치고 결승에 오른 석하정은 김정현을 상대로 첫 세트를 따냈지만 두 번째 세트를 드스플에 10-12로 내줬다. 하지만 장기인 백핸드 공격에 날을 세워 3-5세트를 내리 이겨 우승을 확정했다.

이로써 석하정은 새해 첫 대회를 승리로 장식하며 지난해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남자 개인 단식에서는 실업 3년차인 정상은이 풀세트 접전 끝에 김민석(19·인삼공사)의 추격을 세트스코어 4-3으로 뿌리치고 이 대회 첫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8강에서 간판스타 유승민(29·삼성생명)은, 준결승에서는 대표팀 말언이자 디펜딩 챔피언 오상은(34·인삼공사)을 각각 4-2로 꺾는 '테이블 반란'을 일으켰던 정상은은 역시 준결승에서 국내 톱랭커 주세희(31·삼성생명)을 누른 김민석과 일진일퇴의 공방을 펼쳤다.

1세트씩 주고받으며 세트 스코어 3-3에서 마지막 7세트를 맞은 정상은은 김민석의 긴 드라이브 공격에 7점을 내리 내취 4-7까지 몰려 패색이 짙어 보였다. 하지만 이어진 텔리에서 강한 포어핸드를 살려내 게임을 10-



〈정상은〉

10 드스로 물고 간 뒤 허를 찌르는 드라이브로 상대의 리시브 실수를 이끌어내 13-11로 승부를 매듭지었다.

/연합뉴스

워드 터치다운... 피츠버그 디비전 우승

한국계 하인스 워드(34·사진)가 뛰는 미국프로풋볼(NFL)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아메리칸콘퍼런스(AFC) 북부지구 시즌 정상을 올랐다. 와이드 리시버 워드도 이날 두달 만에 터치다운을 끊으며 팀의 디비전 우승에 힘을 보탰다.

피츠버그는 3일 오전(이라 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브라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터치다운만 무려 5개를 쳐어 41-9로 크게 이겼다.

12승4패가 된 피츠버그는 볼티모어 레이브스(12승4패)를 끌어살 차로 따돌리고 AFC 북부지구 우승을 차지하며 정규리그를 마감했다. 최근 4년간 디비전 우승만 3번째다.

피츠버그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14승

2패)에 이어 AFC 2위에 올라 2회전인 디비저널 플레이오프에 진행해 통산 7번재 슈퍼볼 우승에 한발 가까워졌다.

클리블랜드와 총 14번 맞붙어 13번을 이긴 '전적'답게 이날 경기 역시 피츠버그의 일방적인 압도로 끝났다.

피츠버그는 1쿼터가 8분도 채 지나기 전에 터치다운을 2개나 끊었고 2쿼터에서도 2번의 터치다운을 폭발, 전반에 이마 31-3으로 앞서며 우승을 예고했다.

후반인 워드도 소나기 공격에 가세했다. 3쿼터 중반 앤트워盼의 3야드짜리 패스를 받은 워드는 시즌 5번째 터치다운을 끊으며 대승을 이끌었다.

지난 시즌 1167야드를 기록, 2년 연속 1천 야드 돌파를 이뤄낸 워드는 시즌은 총 전 진거리 755야드에서 마감했다. 지난해 95



번 끝았던 리시빙 횟수도 올해엔 59회에 그쳤다.

하지만 워드는 시즌 후반 뇌진탕 부상에도 출전을 거듭하며 고비 때마다 승리에 이바지 팀이 2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데 원동력이 됐다.

/연합뉴스

최철한 올 첫 승리 주인공

바둑왕전 주형욱에 반집 승

신묘년 새해 첫 승리의 주인공은 '독사' 최철한이었다.

최철한 9단은 3일 여의도동 KBS신관 14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9기 KBS바둑왕전 폐자4회전에서 주형우 5단을 맞아 흑으로 반집 승을 거뒀다. 올해 개막전인 이날 대국에서 최철한은 상대를 압도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주형우 강력한 저항으로 고전했으나 판례의 반집 승을 거두면서 250점의 프로기사 중에 가장 먼저 첫 승리를 신고했다.

작년 한해 66승(22패)을 기록하며 74승의 이세돌 9단에 이어 다음 부문 2위에 올랐던 최철한은 12월 3일 농심배에서 다카오 신지 9단을 누르고 통산 18번째로 700승을 달성했다.

/연합뉴스

격투기 김동현 리복과 후원 계약

미국 종합격투기대회인 UFC에서 5연승을 거둔 격투기 간판선수 김동현(29)이 스포츠 브랜드 리복이라는 든든한 후원사를 얻었다.

리복은 3일 "김동현과 2011년 후원 계약을 했다"며 "김동현은 리복의 에너지 슈즈인 직텍(ZIGTECH)의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선수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리복은 지난해 5월부터 김동현을 후원하면서 직택 운동화와 의류를 제공했다. 김동현은 지난 2일 웰타입 네이트 디아스(25·미국)와 UFC 125경기에서도 직택 의류를 입고 육타곤에 올랐다.

/연합뉴스

9500 km '죽음의 레이스' 다카르 랠리 개막

'죽음의 레이스'로 불리는 다카르 랠리는 2011년 대회가 2일(이하 한국시간)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막을 올렸다.

17일까지 계속되는 올해 다카르 랠리는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13개 구간 9500여 km에서 펼쳐진다. 아르헨티나 빅토리아에서 코르도바까지 222km에 이

르는 1구간 자동차 부문에서는 지난해 월드컵 피언 카를로스 사인초(스페인)가 2시간 18분32초에 달려 선두에 올랐다.

폴크스바겐을 타고 출전한 사인초는 2위 스테판 피터하늘(프랑스·BMW)을 1분31초 차이로 따돌렸다.

다카르 랠리는 바이크, 4륜바이크, 자동차, 트럭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열리

1구간 자동차부문 사인초 선두

며 올해는 바이크 부문에 186명, 자동차 부문에 156개 팀이 출전했고 트럭 72개 팀, 4륜바이크 38명이 도전장을 던졌다. 포장되지 않은 도로에서 열리는데다 코스가 길고 험난해 해마다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대회는 2006년 3명, 2007년 2명이 숨졌으며 2009년에는 3명의 사망자를 냈다.

/연합뉴스

1월 9일(일)

▲광주일주산악회 경남 창녕 화왕산 1월5일(수) 7시20분 엄주체육관 출발(7:30 동아병원, 7:40 상록호텔, 8:00 광주여성병원 경유) *다음카페: 광주일주산악회 T.010-3606-8943

▲광주정통국악회 경남 남해군 망운산 1월5일(수) 7시50분 백운봉 로티리 출발, 8시 교원공제 회관, 8시10분 예술회관 후문, 8시20분 동광주 ic입구 *다음카페: 광주정통국악회 T.010-3645-0111-259-0284

1월 6일(목)

▲(원)광주서산석산의회 부사지 가덕도 연대봉, 응봉산 산행 후 거제~부산간 해저터널 관람 1월6일(목) 7시30분 끝내마을 출발(7:40 40분 병원 앞 / 7:50 흙풀러스 앞) T.018-606-4830

▲광주한국산악회 지역산民복대 1월 6일(목) 7시50분 출발 엄주체육관 출발*다음카페: 광주한국산악회(*우리산악회는 음주가부하지 않습니다)

T.011-615-2279

1월 7일(금)

▲광주에이스산악회 진안 운장산 1월9일(일) 7시30분 비엔날레주차장 출발(7:15분 15분 무각사업구 / 7시30분 비엔날레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http://cafe.daum.net/gwangjuaeioumountain

▲남부산악회 진도 천장산(시사제) 1월 9일(일) 8시 20분 방ップ삼거리(삼신협암) 출발(조대·교대·광주역·은평원 경유) 준비봉·종식·맞춤식·산행장비

T.010-679-5658

1월 8일(토)

▲광주한국산악회 경남 창녕 화왕산 1월5일(수) 7시10분 예술회관 후문, 8시20분 동광주 ic입구 *다음카페: 광주정통국악회 T.010-3645-0111-259-0284

▲(원)광주서산석산의회 부사지 가덕도 연대봉, 응봉산 산행 후 거제~부산간 해저터널 관람 1월6일(목) 7시30분 끝내마을 출발(7:40 40분 병원 앞 / 7:50 흙풀러스 앞) T.018-606-4830

▲광주한국산악회 지역산民복대 1월 6일(목) 7시50분 출발 엄주체육관 출발*다음카페: 광주한국산악회(*우리산악회는 음주가부하지 않습니다)

T.011-615-2279

1월 9일(일)

▲광주한국산악회 경남 창녕 화왕산 1월9일(일) 7시30분 문예회관 후문 / 8시 비엔날레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광주한국산악회 T.010-3645-0111-259-0284

▲광주한국산악회 경남 창녕 화왕산 1월9일(일) 7시30분 문예회관 후문 / 8시 비엔날레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광주한국산악회 T.010-3645-0111-259-0284

▲(원)광주서산석산의회 부사지 가덕도 연대봉, 응봉산 산행 후 거제~부산간 해저터널 관람 1월6일(목) 7시30분 끝내마을 출발(7:40 40분 병원 앞 / 7:50 흙풀러스 앞) T.018-606-4830

▲광주한국산악회 지역산민복대 1월 6일(목) 7시50분 출발 엄주체육관 출발*다음카페: 광주한국산악회(*우리산악회는 음주가부하지 않습니다)

T.011-615-2279

1월 10일(월)

▲광주한국산악회 경남 창녕 화왕산 1월9일(일) 7시30분 문예회관 후문 / 8시 비엔날레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광주한국산악회 T.010-3645-0111-259-0284

▲광주한국산악회 경남 창녕 화왕산 1월9일(일) 7시30분 문예회관 후문 / 8시 비엔날레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광주한국산악회 T.010-3645-0111-259-0284

▲(원)광주서산석산의회 부사지 가덕도 연대봉, 응봉산 산행 후 거제~부산간 해저터널 관람 1월6일(목) 7시30분 끝내마을 출발(7:40 40분 병원 앞 / 7:50 흙풀러스 앞) T.018-606-4830

▲광주한국산악회 지역산민복대 1월 6일(목) 7시50분 출발 엄주체육관 출발*다음카페: 광주한국산악회(*우리산악회는 음주가부하지 않습니다)

T.011-615-2279

1월 11일(화)

▲광주한국산악회 경남 창녕 화왕산 1월9일(일) 7시30분 문예회관 후문 / 8시 비엔날레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광주한국산악회 T.010-3645-0111-259-0284

▲광주한국산악회 경남 창녕 화왕산 1월9일(일) 7시30분 문예회관 후문 / 8시 비엔날레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광주한국산악회 T.010-3645-0111-259-0284

▲(원)광주서산석산의회 부사지 가덕도 연대봉, 응봉산 산행 후 거제~부산간 해저터널 관람 1월6일(목) 7시30분 끝내마을 출발(7:40 40분 병원 앞 / 7:50 흙풀러스 앞) T.018-606-4830

▲광주한국산악회 지역산민복대 1월 6일(목) 7시50분 출발 엄주체육관 출발*다음카페: 광주한국산악회(*우리산악회는 음주가부하지 않습니다)

T.011-615-2279

1월 12일(수)

▲광주한국산악회 경남 창녕 화왕산 1월9일(일) 7시30분 문예회관 후문 / 8시 비엔날레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광주한국산악회 T.010-3645-0111-259-0284

▲광주한국산악회 경남 창녕 화왕산 1월9일(일) 7시30분 문예회관 후문 / 8시 비엔날레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광주한국산악회 T.010-3645-0111-259-0284